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소미	학번	■■■■■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5. 1. 18(일) ~ 2. 8(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랑가라 컬리지는 밴쿠버에 위치하고 있으며 트레인역과 버스정류장이 가까이 있어서 다운타운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 교통이 편리하다. 캠퍼스가 큰 편은 아니지만 건물이나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쉴 수 있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 하지만 화장실이 조금 찾기 힘들고 적은 편이다. 분위기는 활발하고 밝다. 카페테리아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교환학생이나 홈스테이 관련 오피스 직원들도 친절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p>
수업	<p>이번에는 레벨테스트 없이 15명에서 한 반에서 다 같이 수업을 들었다. 수업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다. 오후에 Field trip이 있는 날에는 오전 수업만 한다. 수업은 학교에서 나누어준 바인더로 진행되었다. 선생님이 따로 복사해주신 핸드아웃을 바인더에 끼워넣기도 한다. 듣기, 읽기, 쓰기, 스피킹 모든 파트를 공부했지만 거의 스피킹 위주의 수업이었다. 수업시간에는 E.O (English Only)라는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매일 아침에는 어제 방과 후에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Taby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고 잘 들어주신다. 선생님께서는 친절하고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 과제는 없는 편이다. 홈스테이 가족과 인터뷰를 하거나 간단한 퀴즈를 풀어오도록 시키실 때가 있다. 계속 앉아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일어나서 활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이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배우는 내용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비해 쉬운 편이라서 지루함을 느낄 때도 있었다.</p>

Activity	<p>일주일에 두 번은 오후에 이론수업이 아닌 Field trip을 가거나 다른 액티비티를 한다. 우리는 밴쿠버 박물관, 그랜빌 아일랜드, 컬링, 밴쿠버 아쿠아리움, 눈이 녹아서 못한 snowshoeing 대신 그라우스 마운틴으로 Field trip을 갔으며 하루는 랑가라 학생들과 다과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한 준비물은 따로 없었지만 컬링을 했을 때나 그라우스 마운틴에 갈 때는 편한 복장과 운동화, 장갑이 필요했다. 갈 때는 학교에서 대절된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교통비가 들지 않지만 돌아올 때는 각자 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버스티켓이 필요하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겨울의 밴쿠버는 레인쿠버라고 할 만큼 비가 많이 내린다. 하지만 1주차와 2주차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고 파란 하늘도 보였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맑은 하늘은 드물다. 안개가 많이 끼고 먹구름이 많다. 그래도 등하교시나 방과 후 놀러다닐 때 불편함은 없다. 비가 와도 폭우처럼 내리지 않고 보슬비처럼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우산을 잘 쓰지 않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다닌다. 우산을 들고 온다면 조그만 우산으로도 충분하다. 3주차에는 5일 내내 비가 내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보다 훨씬 따뜻해서 너무 좋았다.</p>
안전	<p>겨울에는 5시 반만 되어도 캄캄해지고 다운타운에도 사람이 적어진다. 홈리스들도 많고 동네에 가로등이 많이 없어서 9시 넘어서 여자 혼자 다니기에는 무섭다.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말을 걸기도 했지만 무시가 답이다.</p>
숙소	<p>홈스테이집은 2층이었다. 1층은 홈스테이 전용 층으로 혼자 사용했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홈스테이 가족들이 사는 공간이 있다. 집은 깨끗하고 부엌도 화장실도 따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방은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과 스탠드가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었다. 온도는 적당했지만 살짝 건조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빠르게 잘 터졌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아침은 부엌에서 간단하게 시리얼이나 과일, 토스트를 먹었다. 점심은 항상 홈스테이 마더가 싸주셨다. 거의 매일 햄치즈 샌드위치와 주스였다. 질릴때는 가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사먹었고 저녁은 거의 외부식당에서 먹었다. 입맛에 완전히 안 맞지는 않았지만 느끼하고 금방 포만감이 느껴지</p>

	는 음식들이 많았다.
교통	홈스테이집이 학교와 가까운 거리였지만 등하교시에는 버스를 타고 다녔다. 한번 환승을 해서 버스로 총 20분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대부분 아침에 친구들과 만나 운동 삼아 학교까지 걸어갔다. 밴쿠버에서의 주요 교통수단은 버스와 트레인이다. 동일한 티켓을 가지고 탈 수 있고 1시간 반 안에 횟수도 제한 없이 탈 수 있다. 밴쿠버 버스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편하다. 집과 다운타운과 학교 사이가 멀지 않아서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좋았다. 하지만 밴쿠버 버스는 한국 버스와 다르게 버스 안에 사람들이 조금만 많아져도 더 이상 사람들을 태우지 않고 정류장을 지나쳐 가버려서 당황스러웠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347,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약3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교통비	약100,000원	추가 버스티켓 구입+ 빅토리아 여행 페리
식비	약400,000원	
쇼핑	약150,000원	
기념품	약50,000원	
합계	약 2,10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p>방과 후에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어볼지 어느 정도 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주말을 이용한 여행도 고려해볼만 하다.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줄 선물은 먹을 것도 좋지만 한국적인 물건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호떡믹스를 한국에서 사가서 만들어주었는데 홈스테이 가족들이 좋아했었다. 또 겨울에 갈 때에는 작은 우산과 모자가 달려있는 후드티나 후드집업이 유용할 것 같다. 조그만 카드지갑이나 카드목걸이도 버스티켓과 홈스테이집 열쇠를 넣고 다니기에 유용하다. 스타벅스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식당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적다. 데이터가 안 되도 현지인들에게 물어보거나 지도를 보면 목적지를 금방 찾을 수 있으니 스마트폰 데이터 로밍은 안 해도 된다. 친구들과끼리의 연락은 간단하게 문자로 할 수 있다. 생활용품이 비싼 편이어서 특히 욕실용품</p>

은 한국에서 가져가는데 좋을 것 같다. 컵라면이나 핫반을 몇 개 가져가는 것도 좋다. 그리고 식당에서 계산을 할 때 텍스와 팁을 별도로 줘야하는데 계산 방법을 숙지해 두어야 돈을 더 내고 나오는 어리석은 손님이 되지 않는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오직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 너무 보람찼다. 솔직히 방학 때는 항상 집에서 늘어져있기 마련인데 이번 단기어학연수를 통해 뜻깊은 동계방학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3주 내내 자연스레 영어를 접하다 보니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고 외국인과의 대화를 하는 것에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또 3주간의 홈스테이 경험을 통해 캐나다 음식이나 문화, 그리고 언어를 접하고 그 안에서 함께 생활했었다는 점이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또 3주간 무사히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같이 간 학우들이라고 생각한다. 서로를 몰랐던, 전공이 다른 같은 학교 친구 15명이 모였지만 마음을 맞춰 수업이 없는 주말에 계획을 잡아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다. 언제 어디를 가서 무엇을 먹든 즐거웠고 타지에서 외롭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 다른 친구의 홈스테이집 저녁에 초대받아 한국 요리를 해서 먹은 적도 있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것 같다. 아쉬운 점도 물론 없진 않다. 겨울이기 때문에 해가 너무 빨리 저서 식당이나 카페도 한국보다 일찍 문을 닫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홈스테이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아쉬웠다. 일찍 학교에 가서 저녁을 먹고 늦게 들어오면 주말을 제외하곤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다. 또 갓 태어난 아기가 있어서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나를 위해 김치도 사주시고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홈스테이는 대체로 만족스럽다. 비록 영어실력을 늘리기에 3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영어 외에도 나에게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을 갖게 해준 이번 방학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게스타운 증기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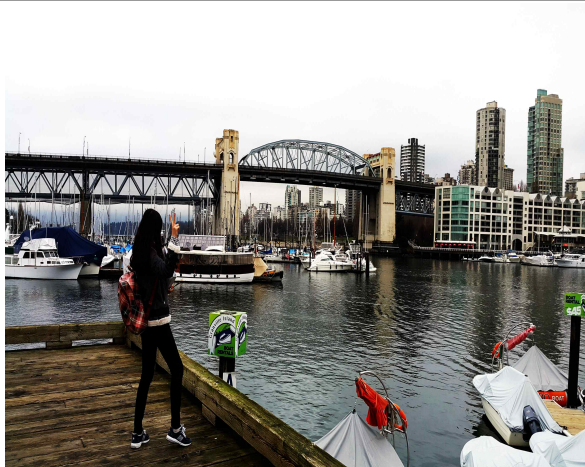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스탠리 파크



잉글리시 베이



그랜빌 아일랜드



학교 마지막날 Taby 선생님과